

충남마을기행  
 ●  
 홍성거북이마을



술바람길 따라 떠나는 느림보여행

## 홍성거북이마을

정봉희 | 충남발전연구원 홍보팀장

### ● 내현마을, 거북이머리를 듣다

충청남도 홍성군 구항면 내현리에 자리 잡은 거북이마을은 “거북이 목처럼 생겼다”하여 구항, 구산, 귀목(구을뚝)이라고 하기도 하며, 거북모양의 바위가 머리를 안쪽으로 향하고 있어 ‘내현마을’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다.

마을 입구에 들어서면 오른쪽엔 ‘내현마을’, 왼

쪽엔 ‘거북이마을’이라 써져 있는데, 둘 다 같은 마을을 가리킨다.

필자가 찾아간 3월 어느날, 날씨는 봄을 재촉하는 화창하기 그지없는 날이었지만, 바람이 많이 불어 체감기온은 상당히 추운 여전히 겨울이었다.

거북이마을은 9가지 보물을 덮고 있다는 보개산이 병풍처럼 품고 있으며, 500년 된 느티나무



를 중심으로 담양전씨 3은(아은, 뇌은, 경은)을 모신 구산사(門陽毘), 그리고 전통가옥이 농촌의 향기를 간직하고 있는 마을이다.

말 그대로 예전부터 이 마을은 담양 전씨의 집성촌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37농가 121명의 마을주민들 중 담양 전씨는 4가구에 불과하다.

거북이마을도 여느 농촌마을처럼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그치지 오래된 마을로서 50대 청년(?)이 가장 막내일 정도의 고령화된 마을이지만, 새로운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을 주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똘똘 뭉친 미래를 준비하는 게 어있는 마을이다.

2000년대 초반 이 마을 출신 지도자들이 하나 둘 나섰고, 끈질긴 설득 끝에 삶의 무게로 닫혀있던 주민들의 마음도 서서히 열리기 시작하였고 공동체 두레 정신이 되살아나면서 마을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였다.

다시 말해 벼, 고추 등 일반 작물농업으로는 경쟁력을 갖출 수 없고 이 마을만의 특화된 자원을 활용한 농외소득의 경쟁력을 높여 잘 사는 마을, 아름다운 마을, 살기좋은 마을을 만들어보자는 데 동참하기로 한 것이다.

우선 거북이마을은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지리 우지진다..’로 시작하는 “권농가”의 저자인 남구만 선생의 생가터가 남아있고, 충절의 아은, 뇌은, 경은 세장수를 모신 구산사와 도지정문화재인 담양전씨 문중의 자천공 전운상, 석천공 전상

의 영정과 한유도 등을 전시한 장충영각, 그리고 9가지 보물을 덮고 있는 보개산과 보리고추장 등을 자원으로 하여 2002년 농촌전통테마마을로 지정되면서 오늘의 거북이마을로 새롭게 태어날 준비를 한다.

## ● 거북이마을에서 거북이권역으로의 발전

전통테마마을로 선정된 후 감추어졌던 마을의 자랑거리가 훌륭한 자원이 되었고, 스스로 마을을 가꾸는 의식이 주민 저변에서 일어났으며 무엇보다도 비 참여농가들이 주택의 손질과 정원가꾸기 등의 솔선하는 모습으로 바뀌었다. 또한 마을방문객의 증가로 농산물의 판매가 급증했으며 가격도 적정수준으로 대우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더 많은 주민들의 참여로 보개산 공원화 및 산책로 조성사업을 계획하게 되었고 산주 22명의 전원동의를 얻어 주민 스스로 공원화 조성 20,900주(은행묘목 1,500주, 산벚꽃 650주, 윗나무 1,200주, 복숭아 750주, 참나무 6,000주)를 25ha에 식재하였으며, 농사체험과 전통음식체험, 전통예절교실 등의 운영으로 TV, 신문, 라디오, 책자 등에 홍성 거북이마을이 소개되었다.



〈여기는 거북이마을입니다〉



〈장충영각〉



〈악천초당〉



〈구산사〉

이는 주변마을의 부러움을 사게 되었고, 같이하고 싶은 마을들이 동참하면서 생활권과 공동작업이 가능한 3개 마을을 권역으로 묶어 2007년 내현권역이라는 이름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신청하게 되었다.

이곳 거북이마을에서 태어나 개인 사업을 하시다가 2007년도부터 다시 돌아와 현재까지 마을운영위원장을 맡고 계신 전병환 위원장은 “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한 이해를 잘하지 못해서 애를 좀 먹었지만, 일단 설득되면 일사천리로 진행될 정도로 한 마음이 되었다.”면서 뿌듯해 하셨다.

결국 전국 115권역을 대상으로 농림수산식품부의 서면심사와 예비타당조사 등을 거쳐 55개 권역을 선정하고 전문가의 현지조사 및 최종평가 등을 통해 36개 권역이 확정되었는데, 내현권역은 거북이마을의 그동안의 성과에 힘입어 2008년 우수한 성적으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전 위원장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총 41억 5,700만원을 투입해 다목적회관, 마을회관 리모델링, 농산물 유통판매시설, 야생화 산책로 조성, 마을경영지원 등의 사업이 추진된다.”고 자랑하셨다.

특히 가장 먼저 솔바람길 조성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제주 올레길을 시작으로 전국이 걷기 열풍이라면서



〈장충영감을 설명하고 있는 전병환 운영위원장〉

내현권역만의 명품 걷기 코스를 계획하고 있었다. 걷는 곳마다 이야기가 설여 있고 소나무 향이 마음을 맑게 하는 보개산 길을 중심으로 ‘충남 솔바람길 조성사업’이 추진된다는 것이다. 이번 사업을 잘 해서 지역민들이 찾고 아끼는 홍성의 중심 레저 공간을 만들겠다는 확신에 차 있었다.

그러면서 지속가능한 농촌을 만들기 위한 소득의 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다.

내현권역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 고사리 영농기반을 조성했는데, 한 해 생산되는 고사리의 안정적인 판로 개척을 위한 2차산업의 가공이 필요한 시점에 거북이마을의 보리고추장과 된장, 간장 등을 만들어 팔던 ‘구을목 전통장연구회’가 (주)지랑으로 발전하면서 충남형 사회적기업에 선정되어 보리고추장은 물론 내현권역 고사리의 안정적 가공과 판로가 확보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에 충남형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서 1년간 인건비(월 63만원, 최대 10명)와 전문인력 채용 보조금(기업당 1명, 월 150만원), 사업개발비(최대 1000만원) 등이 지원되며 기술개발 지도·공공기관 물품 구매시 우선권 부여 혜택도 주어진다고 한다.

## ● 거북이마을의 먹을거리와 즐길거리, 그래도 하룻밤은 자 봐야...

위에서 말했듯이 거북이마을은 보리고추장이 유명하다. 종가의 솜씨로 담가낸 텃밭하면서도 구수한 보리고추장과 직접 재배하거나 보개산에서 채취한 나물들을 섞어 만든 비빔





- i 보리고추장
- ii 산나물
- iii 외가집떡
- iv 전통주
- v 중가음식체험
- vi 방문객을 기다리고 있는 각종 전통놀이도구들

밥의 향과 맛은 정말 일품이었다.

이외에도 우리 농산물을 엄선해 만든 전통 그대로의 외가집떡, 솔나무를 비롯한 천연재료만을 사용해 만든 전통주 등 남녀노소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먹을거리가 한상 가득하다.

또한, 거북이마을은 농촌체험마을로도 널리 알려져 있는데, 독특한 경험을 할 수 있다.

먼저 마을 한 가운데 자리잡고 있는 500년이 넘는 느티나무는 더위를 식히는 커다란 그늘이 되어주기도 하지만, 이 자리가 마을에서 가장 기운이 세다고 해서 맨발길과 기 체험 수련장 등을 만들어 명당체험을 하도록 했다.

그리고 '동창이 밝았느냐'의 작가인 남구만 선생의 생가터인 약천초당에서는 다양하고 재미있는 시조 프로그램(걷는 시조, 읽는 시조, 체험 시조, 바꾸기 시조, 그리는 시조, 먹는 시조 등)을 체험할 수도 있다.



〈500년이 넘는 느티나무〉



i 다목적회관 전경  
ii 구산사로 들어가는 마을 길

또한, 보개산을 중심으로 거북이 체험 탐방도 가능한데, 마을입구에서 보개산 7바위를 지나 구절암까지 돌아오는 코스다. 특히 7개바위(보살바위, 자라바위, 범바위, 삼형제바위, 곰보바위, 줄바위 등)마다 전해 내려오는 전설을 따라 걷는 재미가 솔솔하다고. 앞으로 조성될 솔바람길의 모습이 더욱 기대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이곳 거북이마을에는 담양전씨 종가집 할머니로부터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음식을 맛보고 비법을 배워볼 수 있는 시간도 있다. 바로 종가음식체험이라고 하는데, 전통 꽃음식(화전, 진달래술, 대나무 통밥), 음료(송화밀수, 보리수단), 떡(국화송편, 꿀편, 녹두설기), 병과(야과, 다식, 사슬누름적) 등 다양한 종류의 종가음식을 체험



〈거북이마을 안내도〉

해 볼 수 있다고 한다.

전병환 위원장은 “마을을 찾는 방문객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연간 방문객은 약 5,400명이고, 연 소득은 6,500만원 정도”라고 했다. 그리고 “체험을 위해 방문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1박 2일 일정으로 찾아오고 있으며, 도시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옛 생각을 떠올리게 하고, 어린이들은 도시에서 느끼지 못한 시골의 정취와 마트에서만 봐오던 채소 등 각종 농산물을 직접 채취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간다.”고 했다.

올해 거북이마을은 4월부터 본격 시작된다. 여기저기 옮겨다니며 체험활동을 하던 동선을 최대한 줄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어진 다목적회관이 4월부터 개관한다고 한다. 필자가 찾았을 때 이미 외관은 다 지어져 있었고, 내부 작업만 일부 남았다고 했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같은 장소에서 체험활동과 민박을 동시에 수용했던 것을 분리하게 되면 좀 더 여유로운 체험과 민박이 가능해질 듯 하다.

이에 맞춰 전병환 위원장의 귀띔 한 가지 “봄에는 왕복 30리 벚꽃길을 따라 걷는 벚꽃축제가 아주 좋고, 4월부터 5월에 마을 한 가득 피어있는 봄꽃 모습은 정말 장관이다. 그리고 이어서 5월 중순쯤 열리는 양귀비꽃잔치도 좋은 경험일 될 것”이라고 말했다.



i 거북이마을의 봄꽃 가득한 모습  
ii 고래의 꿈을 안고 사는 거북이마을

그리고 필자는 정말 의외라고 생각했는데, 내현마을 입구를 지나자마자 좌측에 아주 작은 풋말로 '맑은 아침 수목원'이 있는 게 아닌가. 7,000여평의 산자락에 500여종 10만 그루의 나무와 우리 꽃들이 소담스럽고 아름답게 잘 가꾸지고 있다. 여기를 빼먹고 돌아가는 방문객이 의외로 많다는 후문이다.

계간지 발간에 맞춰 마을을 찾다보니 거북이마을의 모든 체험을 할 수 없었던 게 아쉬움으로 남았다. 또한 이곳도 구제역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마을이어서 인지 외지인의 출입을 잘 허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4월부터는 가능하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다.

온 가족이 여유있는 농촌의 풍경 아래 일상의 지친 몸을 쉬게 하는 쉼터로 한 번 놀러가 볼까... 고민해보다면, 고래의 꿈을 안고 살아가는 홍성거북이마을에 솔바람 타고 훌쩍 떠나보는 건 어떨까

## [여행 수첩]

### ● 찾아가는 길? 어렵지 않아요

서해안 고속도로 홍성IC에서 29번 국도를 따라 홍성방향으로 10분정도 가다 구항휴게소를 바로 지나 우측 구항초교 방향으로 들어온 후 1km 직진, 이정표 따라 좌회전해서 1.7km 직진하면 내현마을 입구가 보인다.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마을회관이 나오고 그곳에 주차하면 된다. 한편 당진-대전 간 고속도로에서는 예산수목사IC에서 나와 홍성 방향으로 21번 국도와 29번 국도를 따라 30분을 달려 구항면 이정표를 따라 빠져나와 곧바로 좌회전하면 된다. 여기부터는 구항초교 이후 안내와 동일함.

▶ 내비게이션 : 거북이마을보다 내현마을회관 또는 '홍성군 구항면 내현리 375-1'로 검색 추천!

▶ 홈페이지 : <http://geobukigo2v11.org/> ▶ 전화번호 : 041-632-7074

### ● 이왕 홍성을 갔다면 여기도 둘러보세요

홍성은 충남 서해안과 가까워 새조개로 유명한 남당항을 찾아가 보길 권한다. 그리고 천수만 궁리방조제를 중심으로 철새 관찰은 물론 드라이브 코스로도 손색없다. 그리고 이 두 곳은 서해안 일몰이 아름답기로도 유명하다. 또한 홍주성, 홍성민속테마박물관, 용의 몸집에 봉황의 머리를 얹은 듯하다 해서 붙여진 용봉산, 서해의 등대산이라 불리는 충남 제2의 고봉인 오서산 등도 추천한다.

특히 개인적으로 홍성군 광천읍에 위치한 자연과 예술이 함께하는 '그림이 있는 정원'은 어떨까?

불의의 사고로 전신마비 장애를 얻은 임형재씨는 우리가 아는 유명한 구필화가 (입에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림)이다. 그러나 그 뒤에는 절망에 빠진 아들에게 뭔가 해줄 것이 없을까 찾던 아버지가 있었고, 아들의 그림을 그릴 소재를 만들어 주기 위해 소나무를 하나 둘 심기 시작했다. 그러기를 20여년... 아들만을 위한 커다란 정원이 드디어 탄생한 것이다. 아버지의 애정이 고스란히 담긴 이 수목원은 2005년 일반인에게 공개되면서 세상에 알려졌고 홍성 8경 중 4경에 꼽힌다. 바로 '그림이 있는 정원'이다.

